

광주시체육회-호텔 아트하임, 업무협약

광주 체육발전·관광 활성화...“지역사회 실질적 협력 강화”

인재 육성·스포츠 패키지 공동기획·호텔 부대시설 등 지원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광주 방문의 해” 경제 효과 기대

광주시체육회와 호텔 아트하임이 지역 체육발전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9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호텔 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광주시체육회-호텔 아트하임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갑수 시체육회장, 전용준 호텔 아트하임 회장·광남일보 대표이사 회장, 김재희 호텔 아트하임 대표이사과 한창희 광주골프협회 회장, 윤웅철 광주태권도협회 회장, 최규동 광주체조협회 회장, 배원호 광주레슬링협회 회장, 최수용 광주축구협회 회장, 박영민 광주족구협회 회장, 박도성 광주전주시협의회 회장, 신승구 광주수중·핀수영협회 전무이사, 임효택 광주스쿠시연맹 전무이사, 명기연 광주핸드볼협회 수석부회장 등 중추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임직원, 선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숙박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맺었다. 호텔 아트하임은 협약을 통해 스포츠 패키지 공

동 지원, 호텔 부대시설 및 셔틀버스 지원, 스포츠 행사 참가자 특별 할인 등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호텔 아트하임이 프로스포츠 구단과 여행 업계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우수 숙박업소인 만큼 시체육회는 전지훈련을 위해 광주에 머물 다른 지역 선수들 편의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및 외부 관람객을 위한 숙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준 호텔 아트하임 회장은 “광주시체육회와 호텔 아트하임의 업무협약으로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며 “지역 체육계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시체육회의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호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그동안 지역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광주에 와서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19일 오전 광주 동구 호텔 아트하임에서 열린 ‘광주시체육회-호텔 아트하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전용준 호텔 아트하임 회장·광남일보 대표이사 회장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 김재희 호텔 아트하임 대표이사 및 각 중추단체 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체육인들에게 최상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 아트하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광주 핫플레이스인 동명동, 양림동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회, 브런치카페 등 특색있는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이 호텔은 3성급으로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연회장, 비즈니스 센터,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이 완비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최근 보건관에서 베트남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학당 봄 학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 개소 1년...“유학생 꿈 응원”

봄학기 16명 입학...작년 연수생 4명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진학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2025학년도 한국 어학당 봄 학기 신입생을 맞이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학당장 이상희)은 최근 보건관 2층 율곡홀에서 베트남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학당 봄 학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어학당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동강대 학칙을 준수하고 품위와 긍지를 지닌 연수생이 되겠다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고 본과에 진학해 우수 인재로 거듭나겠다 △유학생·다문화 특성 확대하으로 새로운 K-컬처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지난해 3월 개소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하기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하고 국내 유학의 필수조건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동강대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 지원 선발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지난해 6월에는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 비전을 선포하는 등 외국인에게 입학 문을 활짝 열어 지난해 한 해 98명이 입학했다.

또 동강대는 체육 및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학생들의 적응을 도왔다.

이에 지난해 한국어학당 입학생 중 4명(여 3·남 1)은 올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신입생으로 진학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 청년농부터에서 스마트 영농단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농기원, 스마트 영농단 육성 청년농업인 간담회

운영성과 공유·애로사항 청취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맹관)은 전남 청년농부터에서 스마트 영농단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 영농단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 영농단을 직접 운영하는 6개 시군·단체의 청년농업인 14명과 시군 및 도 관계 공무원 10명 등이 참석해, △지역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우수사례 성과 공유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의견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의 △창업 관점에서 본 스마트 영농단 운영 전략 강의 등의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년 농업인들은 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영농 활동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비 지원과 영농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며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박관수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2023년 해남·무안을 시작으로, 2024년 보성·함평·영광에 스마트 영농단을 설치하고, 개소당 2억 원을 투자해 운영해 왔다. 올해는 나주·함평·영광 등 3개소로 확대해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순천 ‘행복반찬 배달’ 서비스 실시 장영철 일성레미콘 회장 후원

순천시는 3월부터 장애·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세대에 밀반찬을 지원하는 ‘행복반찬 나누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천 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장영철 일성레미콘 회장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동지역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결식 우려 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사례관리사를 통해 매주 1회 따뜻한 밀반찬을 전달하고 아울러 일상 안부까지 살핀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행복마을 행복반찬 사업을 지원해 주신 장영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살피도록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할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지역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월·금·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은세 (음력 2월 21일)

48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최근
60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뤄진다
72년생 기쁨이 조심되면서 처리된다
84년생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96년생 깊은 산에 길을 잃어 헤매는 날

51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행운을 잡는다
63년생 목적을 갖고 다가오는 이가 있다
75년생 하늘의 뜻이니 어찌 못하리오
87년생 문소문으로 다들은 금물
99년생 충고를 귀담아 들을 때

54년생 지나친 생각은 금물
66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된다
78년생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 없다
90년생 황당한 일에 직면할 수도 있다

57년생 변수가 생겨서 곤란스럽겠다
69년생 배우자에게 관심을 돌려 보라
81년생 화제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93년생 말이 최근되니 남의 말을 삼가하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49년생 매끄럽지 못하면 후유증을 남는다
61년생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날
73년생 지금 일에 끈질기게 매달리라
85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로 마무리 될 것
97년생 우정·사랑으로 즐거운 날

52년생 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64년생 투자 유익이 많은 날
76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88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은 멀리 간다

50년생 모든 일들이 뜻한 바 되지 않는다
62년생 막대한 일에 희망이 보인다
74년생 노력한 문사가 남에게 돌아간다
86년생 상대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행동할 때
98년생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53년생 일을 벌여놓게 되면 감당 하기 힘들다
65년생 열렬히 환영 받는다
77년생 소송은 당기시고 매대는 미루라
89년생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56년생 귀하게 하는 편히 훨씬 편할 것
68년생 냉정 관계에 있던 좋아 지는 날
80년생 미래에 밝은 전망이 예상될 것
92년생 각별히 교통사고 주의

59년생 통백과 상성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71년생 찬성이나 표를 얻는 입장
83년생 질뒀던 제 맛 못되던 조상 탓
95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